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회교권 파키스탄과 두바이, 아부다비의 영혼들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구주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의 십자가도 소망과 감사함으로 지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

뜻깊은 성탄을 맞아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되새겨본다.

“변화되어가니 축복이 넘칩니다”

12년 된 눈꺼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치료받은 이의진 자매와 성결의 복음을 통해 축복받은 태국 두생 숭분 목사 간증.

만민뉴스

제768호 2016년 12월 1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권능으로 회교권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밝히다 두바이, 아부다비, 파키스탄 집회 및 세미나



“무슬림을 비롯, 수많은 성도가 권능을 체험하였습니다”

요나스 세가에 제브류올드 목사
(아부다비 생명수 연합복음교회 당회장)



“이번 집회에서 무슬림은 물론 많은 성도가 각종 통증이 사라지고 청력이 회복되었으며 근육 파열, 고혈압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유명 목회자들을 만나며 집회에 참석해 보았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같은 분은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따르는 권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꼭 아랍에미리트와 에티오피아에 오셔서 권능의 집회를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키스탄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깨어났습니다”

야쿰 폴 목사
(파키스탄 총회장협의회 회장)



“저는 길태식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오셔서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과 따르는 표적을 보며 놀라곤 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인데도 그 성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2,500여 명의 청년들뿐 아니라 라호르 및 주변 7개 도시에서 사역하는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였는데, 벌써부터 파키스탄 기독교 부흥에 큰 밑거름이 될 역사적인 세미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회교권에도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었다. 국민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중동과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파키스탄에서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된 네 차례의 집회를 통해서다.

12월 1일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사진 1), 2일에는 아부다비(사진 9), 4일에는 파키스탄 복음 소식 교회(사진 8)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집회가 진행되었고, 6일에는 파

키스탄 라호르 FGA 컨벤션에서 총회장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세미나가 있었다(사진 7, 10).

집회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의 사역이 담긴 ‘권능 DVD’가 상영되었는데 회중은 놀라워하며 큰 박수로 환호하였고, 이어 강사 길 목사가 설교 후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에서 자유케 되며 시력·청력 등 연약함을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사진 2~6).

한편,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00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시 생명의 말씀과 따르는 표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송출되는 이삭TV를 통해 이 목사의 설교와 권능의 역사가 전파되고, 길태식 목사를 강사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여 파키스탄 복음화에 힘써 왔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중동에서 활동하는 파키스탄계 목회자들에게도 전해져 중동 선교로 확대되어 영혼들의 변화와 부흥을 이루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구주 예수

욕하면서 굶은일을 시킬 때면 당장 왕자의 신분을 밝히고 호통치며 벌을 내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왕자가 3년 동안 왕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신분이나 지위를 누리고자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 명령 한 마디로 무수한 천군 천사를 절대적으로 순종케 하는 엄위한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낮고 변질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 사명을 감당하며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언제 어디로 가고 어디서 멈출지, 누구와 만나 무엇을 하실지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존중받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버려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 섭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영으로 이끄시며 열매를 내고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깊은 마음 가운데 자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거나 얻고 싶고, 내가 옳다 여기는 등 내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또 깊은 마음에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면 “...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자기를 부인하며 무엇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라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지요.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참혹한지 예수님께서서는 남덩어리가 달린 가죽채찍에 온몸이 찢기고 머리에는 굵은 가시로 만든 관이 씌워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숨막히는 더위 속에 피냄새를 맡은 독한 벌레들이 상처에 몰려들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고통은 더 처절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일을 한마디 불평 없이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섭리를 반드시 이뤄드리기 원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셨기에 고난을 대신 받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애뜻한 사랑이 십자가의 처형까지도 달게 받을 힘을 얻게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성도님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성도님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쉽고 즐겁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고 행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지요.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힘을 주는 일이니 전도와 심방하는 것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녀를 보실 때 크신 섭리를 이루시며 지극히 사랑하사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의 마음에는 천국 소망이 가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고난이 지나면 다시 천국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화를 누릴 확실한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이 땅에 무수한 영혼을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게 하실 소망이 있으셨지요. 그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힘든 일을 힘들다 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일을 어렵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가장 영광스런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행복과 기쁨이 실제로 마음에 자리잡고 있으신지요? 복음이 담긴 전도지 한 장이 천국에 어떤 상급으로 쌓일지,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어떤 영광으로 주어질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얼마나 소망의 눈으로 바라며 지내시는지요? 소망이 가득하면 항상 기쁨과 은혜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함 속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며, 사랑과 소망이 얼마나 임했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예수님의 마음을 닦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범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자기’가 없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인들 대신 죽으심으로 구세주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백성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3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종살이를 하라고 명령했다면, 그 왕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거친 의복을 입을 때는 전에 입던 비단 옷이 생각나고 산해진미를 먹던 것과 달리 척박한 음식을 먹으니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며, 다가오는 성탄절에 더욱더 진한 감사와 사랑의 향을 올려 드리길 바란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

죄악이 관영하여 무엇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회개의 은혜를 입기란 쉽지 않다. 원수 마귀 사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고 죄를 즐기도록 만들어가고, 교회까지 침범해 교인들을 죄악으로 몰들이고 있다(딤후 3:2-5).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대부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며 눈물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한 번 죄 사함 받았다 해도 대부분 다시 범죄해 죄의 수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

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회개되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공의에 합당한 엄청난 희생을 통해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대하 7:14).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중보기도, 성령의 무한하신 긍휼과 도우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르기 바란다.

마음 중심에서
죄와 선을 깨닫는
'깨달음의 은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도 정작 마음에서부터 깨닫지 못할 때는 거듭하여 범죄할 수 있다. 마음 중심에서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이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셨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나 생령 아담은 하와가 건네는 선악과를 받아먹고 말았다. 불순종 곧 죄가 어떤 것인지 마음으로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죄가 나쁘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다르다. 마찬가지로 선도 얼마나 좋은지 마음으로 깨달아야 범사에 선을 택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선에 대해 스스로 깨닫기까지 참으로 오래 참아 주셨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듯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쉽 없이 깨우쳐 주셨다. '정말 나는 안 되는 것일까?' 할 때에도 끝없는 목자의 눈물과 희생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 목자의 애타는 마음을 깨달아 갈 수 있었다.

죄를 왜 버려야 하는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를 어떻게 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형벌의 심판이 아닌 상급 심판 받을 날을 소망하는 알곡들로 성장했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최고의 선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가고 있다.

죄를 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고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져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이 생긴다 해도 단번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죄를 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좇았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 앞에 서자 그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인생은 연약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막 9:23), 그 말씀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릴 수 있는 힘을, 부와 명예와 권세 등 세상의 즐거움을 분도처럼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얻게 되었다. 예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

들도 이제는 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게 되었다. 흑여 주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지친 영혼이 뒤쳐지지 않도록, 다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힘과 능력을 받도록 지금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보답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 위함이다. 바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다.

주님의 신부 된 성도들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기쁨과 감사, 찬양과 영광으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사랑장 6-10
- 심고 거두는 법칙 1-4
- 창세기 강해 40-45
- 2차 영혼육 4-9
- 믿음의 분량 3-7
- 순전 1-2

GCN TV설교

- 순교의 신앙 1-2 (이수진 목사)
- 꿈은 마음 2 (이미경 목사)
- 옴기 강해 27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17 (정구영 목사)
-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정명호 목사)
- 도마에게 이르시되 "믿는 자가 되라" (이관규 교육전도사)
- 나를 향한 그분의 가상칠언 5 (김정민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9-20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68
- 창조와 과학 5
- 내 마음의 찬양 44
- 모두 드려요 59-60
- English 3

해외성회 및 신규 프로그램

- 마지막 때 3
- 말씀 스페셜 12
- 독일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6
- 권능 스페셜 12
- 회상 23

GCNHD 채널 ktallev tv 882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잉태의 축복을 받아 결혼 4년 만에 저를 낳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자거나 스마트폰을 하니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 오지 않았지요. 은혜를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 해 보려고 결단했다가도 다시 세상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2016년 7월, 친구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순식간에 해결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후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행복과 평안을 느끼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지요. 8월에는 친척들이 사는 춘천으로 내려와 춘천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눈꺼풀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발병하여 12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병은 완치되지 않으며,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1년에 2~3차례씩 재발해 일주일 이상 안압과 쓰라림과 고통 속에 지내야 합니다. 눈 전체에 물집을 동반한 심한 각막결막염을 일으키며, 중추신경계로 퍼지면 뇌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눈동자로 퍼지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지요.

지난 10월 13일(목), 아라비이트로 피로가 누적되어 또다시 제 눈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든 생각이 들었지만 춘천에 온 뒤로 몸



이의진 자매 (21세, 춘천만민교회)

“난치병인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치료받았어요”

에 감기 등 이상이 생길 때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와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치료받곤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병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매일 무안단물(출 15:25)을 뿌리고 녹음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계속 받았습니 다. 그러자 예전 같으면 하루 만에 눈 전체가 심하게 붓

고 빨갛게 충혈되는데, 이번에는 3일간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원래대로라면 신속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 연고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니 걱정이 되지 않았고, 그날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오히려 감사기도를 드렸지요.

10월 16일(주일), 마침 그날은 춘천만민교회 손수건 집회가 있는 날이라 김동헌 담임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온전치 못한 부분을 깨닫고 더 이상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까지 치료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면서 너무도 감사하였습니다.

제 눈은 기도받은 뒤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해 그동안 눈에 피가 쏠려 안압이 높아지고 물집 때문에 깜빡거릴 때마다 고통스러웠던 눈이 편안해졌습니

다. 이후 더욱 빠르게 회복되어 눈의 부기가 빠지고 충혈 된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 기도받은 지 삼일 만에 깨끗이 치료되었지요. 할렐루야!

저는 춘천만민교회에서 요즘 성가대, 율동팀, 청년부 임원 등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 최대의 축복, 이재록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두생 습분 목사 (55세, 태국 뽕쪽만민교회)

저는 태국 차이쁘라칸만민교회 타원 전도사를 통해 만민중앙교회를 안 뒤, 2014년 1월부터 태국 지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지요. 격월로 치앙라이만민교회 담임 이재원 목사님을 통해 듣는 세미나 말씀은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7년간 무수히 올린 금식과 기도를 통해 풀이받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 듣는 생소한 내용이었지만 매우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천국이 분류되어 있어 믿음에 따라 처소가 달라진다는 사실과 가장 좋은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음도 알게 되니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우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은 필수이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과 구원의 기준을 정확히 알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귀한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어하던 중,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며 성령의 감동 속에 눈물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히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성도들에게 날아와 앉는 신기한 잠자리, 최적의 날씨와 무안단물(출 15:25) 등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목도하고 체

험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마음 가득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회개되면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체험도 하였지요.

태국에 돌아온 뒤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더니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열매가 맺혔습니다. 몇 달간 불같이 기도하니 교회가 2배 이상 부흥했고, 성도들은 무안단물을 통해 각종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성장하여 90% 이상이 주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드리는 알곡으로 변화되었지요. 반항심 많던 제 아들도 변화되어 사역을 돕는 일꾼이 되었고, 저 또한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통해 당뇨병과 치질을 치료받는 큰 체험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 인생 최대의 축복은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 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성경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질병을 치료받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태국 뽕쪽만민교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0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안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딩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